

공무원도 하계 U대회 유치 힘 보탠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 직원 제주서 도보순례

광주시 소방안전본부 방재관리과 김영균(사진) 사무관 등 4명이 14일부터 4박5일 일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013 하계 U대회 유치기원 도보순례와 홍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하계 U대회 유치를 기원하는 유니폼을 입고 제주공항을 출발, 한림항~표선항~서화해수욕장까지 약 230km를 걸으며 관광객들에게 U대회 유치 홍보활동을 펼친다.

이번 행사의 단장을 맡은 김영균 사무관은 “100만인 서명운동에 이어 광주 솔원초등학교 학생들이 도보순례를 하는 등 시민들이 열띤 홍보를 하고 있어 공무원도 힘을 보태야 했다”고 말했다.

한편, 하계 U대회 유치 대학생지원단 300명도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현지실사단이 광주 실사를 마치는 다음달 5일까지 버스종합터미널 등지에서 대회 유치 홍보활동을 펼친다.

/운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전원범씨 한림문학상 수상



본사 신춘문예 출신 아동문학가 전원범(64·광주교대교수)씨가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11회 한림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오는 5월17일 오후3시 광주교대 다목적강당에서 열린다.

전남대 대학원 김중선씨 ‘젊은 과학자상’



전남대학교 대학원 수의학과 박사과정 김중선(30)씨가 방사선 관련 뇌질환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 공로로 2008년도 한국수의해부학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에서 ‘젊은 과학자상’을 수상했다.

김씨는 ‘방사선 조사에 의한 해미의존적인 학습-기억의 일시적 장애와 해미의 신경재성의 억제와의 상관관계 검증’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방사선이 학습 및 기억을 손상하는 메커니즘을 파악, 방사선 관련 뇌질환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한 것을 높이 평가받았다.



정명훈씨 유니세프 친선대사에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 정명훈(사진)씨가 유니세프 친선대사에 임명됐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지난해 유니세프 프랑스위원회의 친선대사로 활동한 정씨가 음악을 통해 세계 어린이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제 유니세프 친선대사에 임명됐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한편 정씨의 누나인 젤리스트 정명화 씨는 1999년부터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친선대사로 활동 중이다.

故 박창권 열사 순의비 제막식



중학교 2학년의 어린 나이로 5·18 광주민주화운동에서 숨진 고(故) 박창권(당시 15세) 열사를 기리는 순의비(殉義碑)가 모교인 광주 송이중에 세워졌다. 송이중 동문회와 5·18유족회 등은 지난 12일 송이중 운동장에서 고 박창권 열사 순의비 제막식을 갖고 계엄군의 1980년 5월21일 옛 전남도청 앞 첫 발포에서 숨진 박창권 열사의 뜻을 기렸다. 박창권 열사는 국립 5·18민주묘지 제1묘역에 안장돼 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밥상이 악상이라 했제!’ 책 낸 광양 매실 명인 홍상리씨

“옛날에야 못 먹어 영양실조에 걸렸지만 요새는 너무 잘 먹어 병이 생기죠. 빵이나 우유, 인스턴트 식품 대신 ‘맛없는 음식’으로 바꿔야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농사꾼’으로 알려진 광양의 ‘매실 명인’ 홍상리(65) 씨가 ‘밥상이 악상이라 했제!’(청년사)를 펴내고 ‘소박한’ 음식이 곧 건강식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책은 ‘농사는 작품’이라는 말을 새기며 정직하게 농사를 짓는 홍 씨의 경험을 토대로 건강하게 잘 사는 법을 담고 있다.

홍 씨는 요즘은 너무 잘 먹어 병이 생기는 사람이 많다고 꼬집었다. 실제 그는 한여름 농사를 지으면서도 밥 한 그릇에 된장, 풋고추 30-40개면 한끼 식사에 충분하다는 책에는 “여름철 된장에 쪽이먹는 풋고추는 비타민 C가 굽보다 많고 매운맛을 내는 캡사이신은 신진대사를 증가시키고 비만 예방에도 좋으며, 비타민 A는 호흡기 계통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고 질병 회복을 돋는다”며 그 이유를 꼭꼭 짚었다.

홍 씨는 매실 자장도 잊지 않았다. 그는 “건강은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야 하는 것인데 요즘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자지만 잘 싸는 걸 못한다”며 “매실을 먹으면 깨끗해진다”고 주장했다. 20대에 자궁암 등 두 차례나 암수술을 받았고, 30대에는 교통사고와 류머티즘으로 2년 7개월이나 목발에 의지해야 했던 그가 병마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유기농법으로 기위낸 매실 등 농산물과 손수 담근 장으로 차린 밥상 덕분이었다.

책에는 매일 자연식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과 실천을 통해 효과를 본 자신만의 다양한 자연요법, 아토피나 소아 성인병 등에 시달리는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는 법, 매실로 만들 수 있는 음식 요리법 등이 상세하게 소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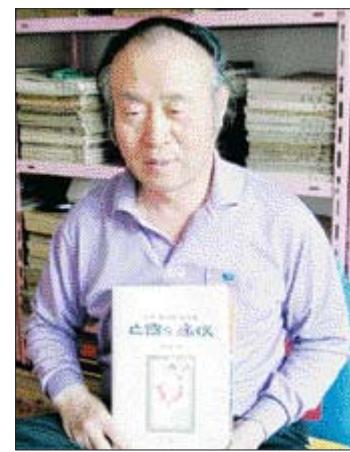
현재 홍씨는 광양시 육룡면 백운산에 위치한 청매실농원의 대표로 있으며, 우리나라 최초로 식품 명인으로 지정받은 매실 전문가다. ‘홍상리의 매실해독 건강법’ 등 매실 관련 건강서적도 출판한 바 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임정 수립 89돌 맞아 낸 국내 첫 ‘친일파 자료집’

광주 심정섭씨 ‘망국의 통한’ 발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89주년을 맞아 국내 최초로 ‘친일파 자료집’이 나왔다.

40년 동안 독립운동과 친일파에 관련된 자료를 모아온 광주지역 ‘독립군 후손’ 심정섭(65)씨는 13일 희귀성과 중요성을 기준으로 편집한 자료집 ‘망국(亡國)의 통한(痛恨)’을 발간했다.

232쪽에 이르는 이 자료집에는 1910년 8월 29일 발행된 ‘한일합방 기념 우편엽서’를 비롯해 ‘한·권만지니·현병의 검문 없이 현해탄을 오갈 수 있다’던 대표적 친일자지 ‘녹기(綠旗)’ 표지 등 귀중한 자료들이 수록돼 있다.

조선인 징용 방법을 상세히 규정

들이 눈에 띈다.

이른바 ‘내선일체(內鮮一體)’를 위해 마을 구석구석까지 일제의 손길이 미쳤음을 보여주는 자료들도 있다. ‘점오가 되면 일본 군인들을 향해 감사의 기도를 올리자’는 등의 실천사항을 담은 애국번(일종의 주민 반상회) 관련 자료, 소작농 억압에 앞장섰던 소작위원회 간부들 사진, 전쟁에 나간 일본 군인의 가족들을 위해 위문금을 모으자는 한국인 면장(面長)의 발기문 등이 그것이다.

자료집을 낸 심씨는 “친일파의 죄상을 널리 알려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고 악랄한 방법으로 도은 재산을 국가가 환수할 수 있도록 이들이 남긴 행적을 기록으로 남겼다”고 말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여수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의료진에 감사패



산업안전공단 ‘무재해 18배 인증패 수여식’



한국산업안전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이관형)는 지난 11일 무재해 18배(4천 333일) 기록을 달성한 한전KDN(주) 전남지사에서 ‘무재해 18배 기록 인증패 수여식’을 갖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kwangju.co.k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무료로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1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화족

▲김재욱(재광 해남군 향우회장) 씨 아들 형록(동아에스테 과장)군 최명규씨 딸 영아(광양여고 교사)양 = 19일(토) 낮 12시 김대중컨벤션센터 맞은편 에벌루션 웨딩컨벤션 3층.

▲김복례씨 장남 안길병군 박용연씨 차녀 혜리(광남일보 기자)양 = 19일(토) 낮 12시 신양파크호텔 1층 그랜드볼룸.

▲박형식씨 장남 정균(고려대 안산병원 치과 전공의)군 김경곤(법무사)씨 장녀 혜원양=19일(토) 낮 1시 광주 상록웨딩홀 3층 무궁화홀.

동창·동문회

▲동신고 총동창회(회장 박노수) 정기총회=17일(목) 오후 7시 프라도호텔, 011-334-3588.

▲광주 대성초교 19회 동창회(회장 하호기)=19일(토) 오후 7시 금남로 일미식당, 016-651-9772.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 062-1331.

▲광주 북구 민방위교육 안내=1년차 신현대원 교육 4월21일(월)~25일(금) 5월6일(화)~9일(금), 전문요원 교육 5월27일(화)~28일(수), 2~4년차 일반대원 교육 5월29일(목)~6월30일(금) 북구청 지하민방위교육장, 510-1264, 410-8264.

▲대한노인회 광주 취업지원센터 일자리 안내=광주시에 거주하는 심신 건강한 60세 이상 노인. 주민등록증 지참, 동구센터 223-8824, 서구센터 431-4529, 남구센터 432-0947, 북구센터 433-6050, 광산구센터 942-0204.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시무소 인

권상담=인권침해·성희롱 등 상담, 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국번 없이 1331, 휴대전화 062-1331.

▲한국실버복지회 무료 생활법률 상담=내용증명, 고소장, 호적정리, 가정 고민, 실버 결혼, 이발, 주례 서주기, 묘지자비 주기 등(실태에 한함), 365-8228.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영아일시 보호소 무료 상담=보호가 필요한 아동 일시보호 상담. 국내 입양 상담. 미혼모 상담 및 시설 입소 안내. 222-1095.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영아일시 보호소 무료 상담=보호가 필요한 아동 일시보호 상담. 국내 입양 상담. 미혼모 상담 및 시설 입소 안내. 222-1095.

▲한국웃음요가연구소(소장 김영식 박사) 국제 웃음요가 지도자 양성 수시 모집=웃음치료, 웃음요가 무료상담, www.hahayoga.co.kr 381-8254, 010-9374-7482.

▲황실 심자수 무료 수강생 모집

=쿠션·시계·베개·주차증·방석·액자·지갑·핸드폰줄 제작 등 무료 교육, 512-4000, 528-8500.

▲늘기 기본 지역 이동센터 공부방 무료 수강생 모집=초등학생, 방과 후 숙제 및 학습지도, 511-6771.

▲전통문화예술단 굴림 무진농악 단=은빛국악단 회원 및 강습생 모집 = 풍물반(수·오후 3시), 난타반(목·오후 3시), 장구초보반(화·오후 7시 30분), 중급반(월·저녁 7시 30분), 523-0474, 010-2658-0876.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자원봉사단 모집=광주시 장애인체육회 사무처, www.gjsad.or.kr, 384-5544.

▲북구 한울복지재단 가족 노래교실 ‘참고운송리단’ 회원 모집=55세 이상 가족을 사랑하는 남녀, 572-0129.

▲장애인체육 동호인 모집=광주시장애인체육회 방문 및 홈페이지(www.gjsad.or.kr), 전화 상담 후 신청, 384-5544.

▲광주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가장 실업자 훈련생 무료 모집=제과·제빵·케이크 디자인, 교육기간 3월

11일~7월10일, 월~금 오전 9시30분~오후 1시20분, 미혼여성 가장 또는 배우자 없는 여성, 511-0001~3.

▲놀이 패 ‘신명’ 단원 모집=연극·탈춤·풍물·소리 등에 관심 있는 젊은 남녀, 527-7295.

▲북구 골든벨 축구클럽 동호회원 모집=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분, 20세 이상, 선수출신 환경, 011-608-1060.

부동

▲조승훈씨 별세 오성·은선·영란·혜현씨 부친상 박상운·진승민·김구씨 빙부상=발인 15일(화) 광주 삼성병원 장례식장 2분향소, 519-4442.

▲신인균씨 별세 현종·점자·성자·은애씨 부친상 황현주·정경종·박의열씨 빙부상=발인 15일(화) 송정장례식장 2호, 941-4400.

▲최준씨 별세 윤경·윤하(광주도 시철도공사)·윤민·윤찬(한국은행)·희자·선심·선애씨 부친상 은혁(대우조선)·은영(농협 쌍촌지점)씨 조부상 백임웅·박승훈(KBC 광주방송)씨 빙부상=발인 15일(화) 금호장례식장 특실 301호, 227-4382.

▲이학섭씨 별세 형로·장로·시로·광로씨 부친상 조효민·강준규·박상득·김법중씨 빙부상=발인 14일(월) 그린장례식장 7분향소, 250-4407.

▲김남두씨 별세 융철·옹주·용삼·혜자씨 부친상 하주호씨 빙부상=발인 14일(월) 그린장례식장 9분향소, 250-4440.

▲전진철씨 별세 민선·광선·미경씨 부친상 하구준씨 빙부상=발인 14일(월) 그린장례식장 12분향소, 250-4412.